

‘서민 잡는’ 폭염

전기로 부담에 선풍기도 못켜 오리 산란 금감 축산농 한숨만 손님 받길 뚝 영세식당 된서리

시내버스·택시 에어컨 시비도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고유가와 고물가에 이미 지칠 때로 지켜버린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로당 등 냉방비 지원 ‘전무’= 기초수급대상자 K모(61·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계속되는 폭염이 망스럽기만 하다. 에어컨은 커녕 시원한 바람이 월 1만~2만원 가량 나오는 전기요금에 버거워 찜통더위에도 선풍기를 켜지 못하고 있다. 더위를 식혀주는 것은 부채가 고작이다.

각 동네 경로당도 폭염이 밀린 마 찬가지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월 평균 24만원의 운영비로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H아파트 경로당 회장 임모(70)씨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긴 하나 올 들어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다”며 “지난해 여름, 멋도 모르고 에어컨을 가동했다가 전기요금에 경로당 운영을 못 할 뻔 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도 아우성이다. 동구 Y육아원 관계자는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면서 “답긴 하지만, 에어컨 가동 횟수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얽힌 데 얽힌 격·축산 농가 ‘한숨’= AI(조류 인플루엔자)·사료 값 폭등·고유가에 이어 찾아온 폭염은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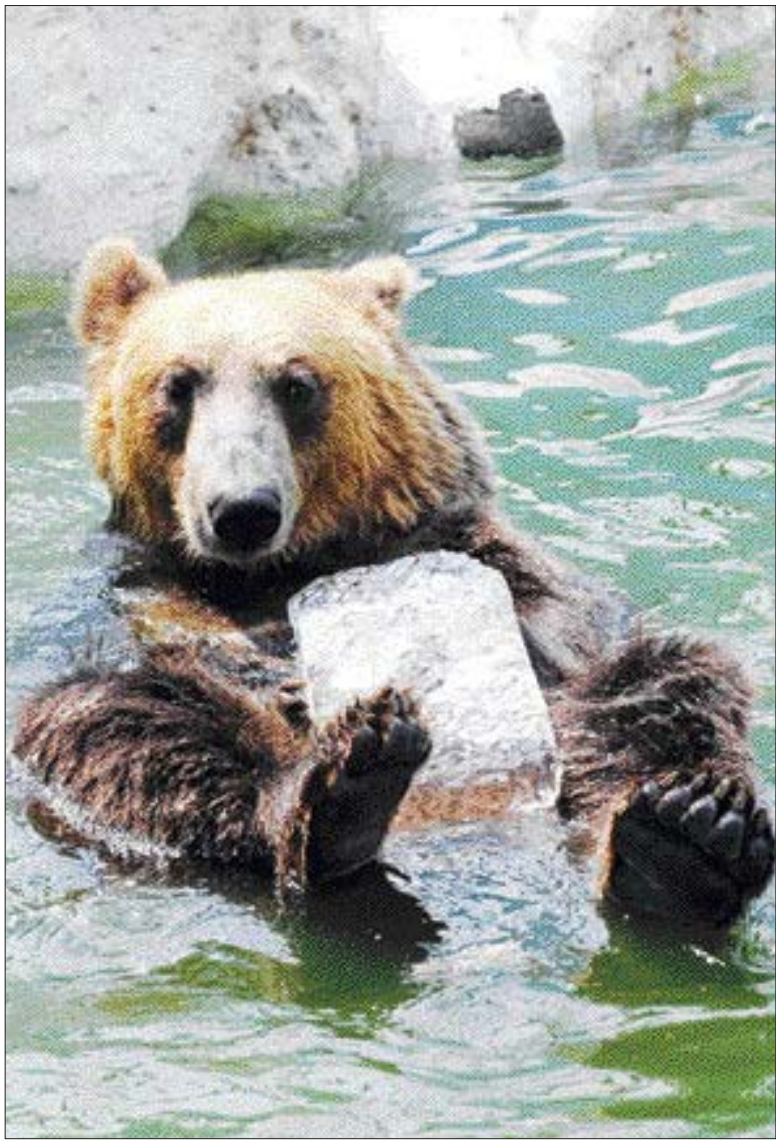
산 농가를 더욱 한숨 짓게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용두동에서 오리 1천 마리를 사육하는 김모(48)씨는 “최근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산란이 700개에서 200개 이하로 뚝 떨어졌다”면서 “연중 오리 값이 가장 비싼 철이지만, 사료와 기름값 폭등으로 사육원가가 3kg당 6천 500원까지 올라 현재 판매원가인 5천 500원을 앞질러 출하가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영세 식당 된서리=더위를 피해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장인들로 인해 영세 음식점이 타격을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 김모(36)씨는 “숨이 막힐 만큼 날씨가 더워 요즘에는 구내식당에서 동료와 함께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며 “나 뿐만 아니라 상당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관공서 주변 등의 영세식당은 점심시간에도 썰렁한 상태다. 특히 뜨거워 탕 종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더욱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북부소방서 인근 H축산물 식당 주인은 “평소 점심때 가면 테이블이 거의 꽉 차는데, 날이 더워져 그런지 손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점통 택시, 승객 불만=최근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나 상당수 택시기사들은 에어컨을 켜지 않아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연료비는 3만2천원으로 에어컨을 작동할



북극곰 얼음 피서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4.1도까지 치솟은 9일 낮 광주 우치동물원에 사는 북극곰이 얼음덩어리를 배 위에 올려놓은 채 불볕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경우 4천~5천원 정도 더 소요된다. 비자불만도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운전기사간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장마전선 중국으로 밀어내

■ 때 이른 폭염 왜

이번 폭염은 지난해 보다 무려 20여일 가량 빨리 찾아왔다. 올 폭염이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찾아온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으로 강하게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해양성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은 보통 장마가 끝난 후 7월 하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난 4일부터 한반도 지역

에 확장하기 시작했다.

장마전선을 중국 중부지역으로 밀어 올린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북동쪽에서 발달했던 차가운 고기압이 빠져나가면서 고온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높은 습도 때문에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않아 밤에 열대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목요일(10일)까지 계속된 뒤 금요일(11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많은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월 하순까지 30도 내외의 날씨를 보인 뒤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도 7월 5일을 전후해 폭염이 일찍 온 적이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은 아니다”며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하며 물과 과일 종류를 많이 섭취하는 등 균형 있는 식사로 무더위를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필성기자 kps@

전력 사용 사상 최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력사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최대전력 수요는 6천248만㎾로 지난해 8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6천228만㎾보다 19만㎾를 초과했다.

전력거래소는 11일 비가 오기 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10일에는 최대전력 수요가 6천 300만㎾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협뉴스

밀입국 중국 선박이 보물선?

중 고대 4대 선박 양식... 학술적 가치 커

최근 해경에 적발된 밀입국 중국 선박(사진)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목포해경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따르면 지난 1일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중국인(한족) 11명을 싣고 밀입국을 기도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 선박이 중국의 전통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3기 목선인 이 어선은 중국 동부지역의 전통 사선(沙船·낮은 수심에 다니는 선박) 형식의 중국 고대 4대 선박 중의 하나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이 선박을 목포해경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전시관 앞 해변광장에 전시했다.

해양유물전시관 이철환 학예연구관은 “바닥이 편평한 우리나라 전통 선박(편저형) 보다 더 편저형인 이 어선은 중국 전통선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료용 등 학술적 가치가 크다”면서 “한·중·일 전통 목선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박은 중국 장쑤성(江蘇省) 양구항에서 제작됐으며, 선령이 2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선박은 길이(全長) 12m, 폭(幅) 3.2m, 깊이(型深) 0.9m다.

한편, 이 중국 선박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경 중국인 11명(남자 10명·여자 1명)을 태우고 신안군 흑산면 거거도 북쪽 국해도 인근 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이성휴기자 lsh@

고교생이 체벌 교감 경찰 신고

순천의 한 고교 학생이 자신을 체벌한 교감을 신고해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9일 순천경찰서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순천 모 고교 2학년 A군이 교내에서 B교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군에게 피해자 진술을 들었으며 조만간 B교감을 상대로 실제 폭행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군은 “교감 선생님이 교사 휴게실에서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20여대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복 차림으로 등교하던 중 교문앞 신호등에서 출근하던 교감에게 사복입은 것이 적발돼 교복을 세탁했는데 털 말라 가방에 싸 왔다고 해명하다가 꾸중을 듣고, 체벌까지 당했다”고 진술했다.

B교감은 이에 대해 “A군이 자꾸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머리를 몇 대 쥐어박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언이나 심한 체벌은 없었다”며 “부모와 학생을 만나 자제할 경우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흥비 마련하려고...

술 취해 이웃집 강도

광주광산경찰은 9일 한 낮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김모(25)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낮

12시에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이모(56)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를 수 차례 폭행한 뒤 이불 속에 숨겨둔 현금 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552) 김장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취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머리 이상하게 질렸다” 미용실에서 행패

○광주북부경찰은 9일 “헤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 김모(27)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장모(여·48)씨의 미용실에서 헤어드라이기와 면도기 등 미용기기를 부수고 소리를 지르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여주며 장씨에게 비슷한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 경찰에서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상하고 앞 머리카락도 거의 삭발하다시피 했다. 거울을 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세정스크린골프클럽
SEUNG SCREEN GOLF CLUB

세정아울렛 4층!!

12개의 초대형룸과 VIP룸

광주지역 최대의 스크린 골프 클럽하우스입니다

개장: 오후 9시 / 매장: 새벽 2시

예약문의: **062)383-3883**